

4월 4일 **이이협 뉴스레터**

소리통

인의협's Opinion

[성명]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근혜'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것인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규탄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권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던 적폐입니다.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2일 '경제 공약' 발표에 대한 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 중, 보건의료 분야에 관련한 우려를 표명, 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와 더불어 그 속에 들어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찬성의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담겨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요구안] 19대 대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 정책요구



새 정부 하에 우선되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요약해 5가지 큰 방향과 18가지 요구를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 후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 보안관찰법으로 재판중인 강용주선생님에 대한 탄원서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재판중인 강용주선생님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명] 반민주적 반평화적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26일 새벽, 성주에서 사드레이더 및 발사대장치를 구성하는 주요장비를 기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경찰병력 8,000여명을 배치하여 사드배치를 막으려는 소성리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사드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규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News Review

언론속, 인의협회원

[메디파나뉴스] 무상의료운동본부,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 요구 발표

- 공공제약, 주치의·의료비총액관리제, 의료인력 국가관리 등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다음 정권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철폐하겠다는 내용을 제1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스보러가기](#)

[오마이뉴스] '규제프리존법 옹호' 안철수 후보는 사과해야

- '의료영리화' 부추길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되어야



이승홍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 "촛불대선의 후보라면 이러한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 [뉴스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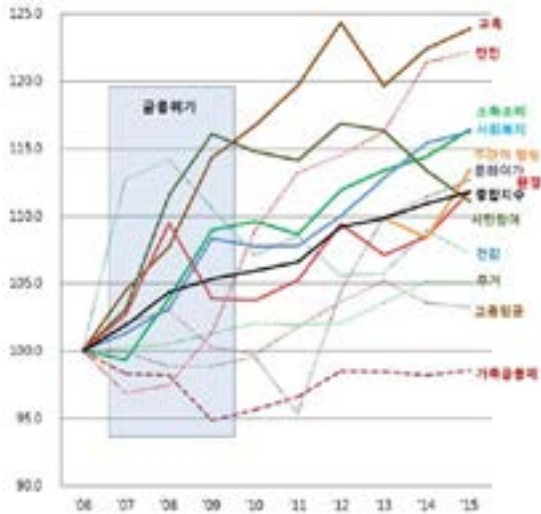
[한겨레] [시론] 지방에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 / 이상윤

“보건의료 일자리 확충은 여성의 일자리와 사회참여를 늘린다는 점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더 이상 논의만 할 상황이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뉴스보러가기](#)

[쿠키뉴스] 최근 10년간 '건강의 질'은 얼마나 개선됐나

-기대수명 증가했지만 건강수명 줄어...전문가들 "일차의료 활성화"주장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 국장은 “만성질환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고 관리도 잘 안되니 건강연령이 줄 수밖에 없다”며 “주치의제도를 통해 담당 주치의에게 만성질환 관리 등 병력에 따른 상담을 꾸준히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뉴스보러가기

[매일신문] 경산시 '의사소통·비용 부담 이중고' 외국인 근로자에 무료 검진



- 대구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가 검진에 참여

▶ 뉴스보러가기

[시사사IN] 생리통인데 화장실을 가라고?

생리를 포함한 여성 건강은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여성들이여, 생리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자. 생리통은 생리혈을 배출하기 위해 자궁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통증이어서 자궁의 모양이나 방향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월경공결제를 요구하고, 진통소염제에는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니 약 먹는 걸 꺼려하지 말자. 오히려 진통소염제로 통증을 조절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생리혈 배출과 스트레스 완화에 훨씬 도움이 된다.

▶ 뉴스보러가기

인의협 활동보고

월례포럼 - 3월 월례포럼 "촛불혁명과 진보정치의 미래" 정의당 윤소하 의원 초청강연



3월 29일(수) “촛불혁명과 진보정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의당 윤소하의원을 초청하여 3월 월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참의료실천 청년한의사회와 함께 공동포럼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의원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함께 진보정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 (가나다 순 / 존칭생략) 고영훈, 김용진, 전일건, 김철신, 정진미, 이상미(건치), 강아름, 김경일, 김정범, 김철주, 우석균, 이미옥, 이보라, 이승홍, 이재호, 정형준, 채윤태(인의협), 김동경, 김지민, 김효진, 김이종(청한) 총 21명]

여성주의공부모임 회의 - 일시: 2017년 4월 26일 저녁 8시 - 장소: 카페 SHIMY SHIMY(종로구 익선동) - 참석자: 김민지, 박현주, 윤정원, 이미옥



4/26일 저녁 4명의 여인들은 저녁바람을 쏘이며 종로골목길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찾은 멋진 카페에서 인의협 여성주의모임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성주의모임을 통해 인의협 내에 젠더 감수성이 더욱 키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푼 마음으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국제위원회세미나 - 일시 : 2017년 4월 21일 저녁 7시 반
 - 장소 : 인의협 강당



[C4] Gender based violence

- 박세현 선생님께서 다양한 자료를 추가하여 발제해주셨습니다. gender에 기반한 폭력이 얼마나 많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후속 대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대처방안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B2] National health service(NHS)

- 이보라 선생님께서 발제해주셨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의료시스템이 신자유주의에 의해 어떻게 무너져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것이 비영리로 있을 수는 없지만 무조건적인 영리화로 인한 피해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진료소 활동** - 4월 7일, 14일, 21일, 28일 진행
 - 4월 참여 선생님 : 이보라, 임성미, 장영우, 최석재(남대문) 강은교, 장연식, 한동엽, (동대문)
 - 4월 환자 수 : 18명+α(남대문) 34명+α (동대문)



〈남대문진료소〉



〈동대문진료소〉

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 4월 17일, 18일, 24일, 27일
이보라선생님, 강아름, 이미옥 간사 참여



3월 30일 단식농성 진료지원

- 철도노조 대전충남지부 천막단식농성 진료지원 (대전역 동광장)

4월5일 머쥬모임

-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를 읽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4월 27일 대전충남 보건의료단체 연대회의 정기포럼

- 제목 : 대선이후 보건의료운동의 전망과 과제.

- 연자 : 김창엽 교수님

대구 · 경북 인의협

<박근혜정부 건강보험 정책 비판과 새로운 대안> 토론회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공동주최, 대구 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관으로 건강보험부와 개편안 비판과 지난4년동안 박근혜 정부하에서 망가진 건강보험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의 빈곤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비급여 항목이 있기에 보장성의 담보상태인 현 우리나라의 문제점, 더 나아가 "건강권"이라는 다시 큰 틀에서의 논의에 대한 고민지점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 민이렌 방문



지난 3월 28일 대경인의협 운영위원분들과 오사카 민의련 선생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는 5월 23일(예정) 3개월간 오사카 민의련 병원에서 연수를 다녀오신 대경인의협 문화국장 김신애 선생님의 귀국보고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드배치반대,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반대 하는 목소리들이 지난 3월과 4월 성주 소성리로 모였습니다. 두번의 집회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평화롭게 집회에 참가했고 이날 대경인의협 의료지원을 갖추어도 큰 부상자 없이 집회 마무리 되었습니다.

희망원 사태를 촉구하는 <희망캠프> 지지방문



대경인의협이 속한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단체 분들과 함께 희망캠프를 방문하여 연대의 뜻과 모금한 소정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세월호 3주기 대구시민대회



지난 4월 15일, 세월호참사 3주기 대구시민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해 대경인의협도 함께하겠습니다.

제8회 대구사회복지영화제



2010년 이래로 매년 열리는 대구사회복지영화제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대경인의협에서 주요 조직위 단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8회 대구사회복지영화제는 지난 4월 19일-23일 대구 동성아트홀과 오오극장에서 개최되었고 <그녀들의 점심시간>이라는 영화를 대경인의협의 날로 정해, 회원분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부산 · 경남 인의협

김용익 전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2017년 보건 의료전망과 19대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부경인의협, 건치 부경지부, 사회복지연대 공동주최했습니다. 윤태호 교수님이 사회를 맡았고, 오랜만에 이지선 선생님도 참석했습니다.

부경인의협 총회



대표(정운용), 사무국장(김종목), 연대사업국장(사공필용) - 연임
학생사업국을 신설 / 학생사업국장은 임정균(공보의)선생님, 감사는 이형근(연임), 박지현(신임)선생님이 임명되었습니다.

통일의료모임 활성화를 위해 정운용선생님이 모임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3월1일 '소녀상을 지키는 천개의 의자' 행사 참여

- 김정목, 임정균, 김영준, 전해숙, 고창권 선생님과 의대생4명(고신의대 3명, 인제 의대 1명) 참석

3월3일 '노숙자 진료소' 운영위

- 정운용, 김종목, 김윤기 선생님과 기타 운영위원(약사, 간호사)들이 참석하여 운영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3월 회원모임'



최근 인의협에 새로 가입하신 김호영 선생님도 참석했습니다. 정운용 선생님이 올해 '통일의료모임'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통일의료'란 책을 함께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4월11일 간담회 진행 with 안병선 부산시 건강증진과장

- 안병선 선생님은 동구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작년 말 부산시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혜숙 선생님도 참석하셔서, 함께 부산시 보건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월 26일 통일의료모임

- 최근 한반도 전쟁위기설에 대한 발표(김종목), 통일의료 2장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발표(정운용) 후 함께 토론했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들린 이미라 선생님도 참석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미라 선생님은 올 연말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할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Coming Soon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사업광고입니다^^

보안관찰법 폐지를 위한 인의협 캠페인



보안관찰법으로 인한 강용주선생님의 공판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전향서를 쓰기 거부해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18년 동안 이어지고있는 제 2의 감옥 '보안관찰법' 폐지를 위한 인의협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많은 회원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안내

1. 손피켓을 제작하여 회원여러분의 얼굴과 함께 인증샷을 찍습니다.(의사가운을 입거나 병원임이 보이면 더 좋습니다^^)
2. 손피켓 모범문구 "보안관찰법폐지,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를 페이스북에 업로드했습니다. 각각 프린터의 사양에 따라 컬러와 흑백버전을 선택해 출력하시면 됩니다.(쓰고싶은 말을 직접 써도 무방합니다.)
3.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꼭 기재해주시고, 이름도 함께 써주세요^^
4. 인증샷을 인의협사랑방♥과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업로드 해주세요.
5. 페이스북에 올리실 때에는 해쉬태그를 함께 해주세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안관찰법을_폐지하라 #인의협_보안관찰법_불복종_인증샷 #양심의_자유_보장하라 #인의협 #보안관찰법_폐지를위한_인의협_캠페인)

>>참여하러 가기!!!

의대생 캠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제 7회 인의협 의대생캠프

의대생, 나가사키 원폭그라운드제로에 가다



일정 : 8월 6일 ~ 8월 11일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장소 : 일본 나가사키

프로그램 :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참가, 나가사키 민이렌 의료기관 견학,
일본의 의료인들과 만남, 평화박물관 방문, 조선인 강제징용
추모비 참배, 군함도 견학

참가비용 : 70만원

참가학생인원 : 10명

후원계좌 : 512-093237-01-110(우리은행)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타문의 : 02)766-6027

신청 : goo.gl/FDfg06 (4/28 오후 6시 마감)



책책책, 책을읽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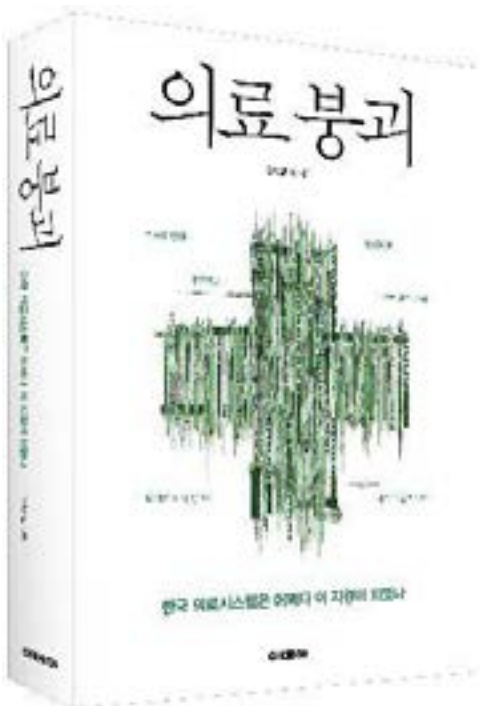
의사가 말하는 의사 Episode 2



흘러간 세월만큼이나 많은 것이 변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재활의학과가, 산업 보건 인식의 증대로 직업환경의학과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예방의학과가 주목받게 되었다. 한편 의사의 영역은 더 넓어져 일반 병원 의사뿐만 아니라 구호활동가로, 의료협동조합 주치의로, 국제기구의 세계 공무원으로, 인문의학자로 일하는 의사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직접 눈을 마주치며 환자와 나누는 교감'이라는 게 의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오늘도 진료실로, 수술실로,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 현장으로 바삐 뛰어다니는 그들의 삶은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과 학부모, 더 나아가 의사라는 직업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의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알려 줄 것이다.

의료붕괴



의료민영화, 메르스 사태, 영리병원, 과잉진료, 신해철의 죽음, 청와대 불법시술... 도대체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의료민영화는 더 이상 '괴담'이 아니고 현실은 아닌가? 제목처럼 한국의 공공의료가 어떻게 붕괴됐는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비판과 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렇다고 '비판'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렇다면 현실적 대안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구입문의 : 010-3793-6022


자세한 내용은 goo.gl/zCJYay 에서 확인해주세요~^^

민의협 창립 30주년

30th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통해 다시금 재도약 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의협 30년사 책자발간

 인의협 창립 30주년 기념식

일시 : 2017. 11. 18 (토) 오후 7시
장소 : 서울 여성프라자

 인의협 창립 30주년 국제 학술대회

일시 : 2017. 11. 21 (화) 오후 3시 반 ~ 오후 9시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403-018093

후원금액

30만원/50만원/100만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에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2017년, 인의협이 창립 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진보적인 의사 모임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87년 민주화운동과 이때 창립된 인의협을 빼고는 진보적 의사운동을 말할 수 없다는 자긍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인의협은 시적되자마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문송면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건강보험통합일원화 운동, 의약분업사태, IMF와 노숙인 진료, 도서지역진료, 반전평화운동과 이라크 의료지원, 광우병 촛불운동과 한미 FTA 반대운동, 의료민영화 지지운동, 쌍용차점거파업 진료지원, 세월호 진료지원, 백남기농민 사망사건과 박근혜 의료농단에 맞선 운동 등 수많은 일에 앞장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의협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어려움은 산적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붕괴시켜놓은 한국 의료제도 개혁요구, 장애인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운동,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운동, 한국형주치의제도 운동, 국제의료지원사업, 무엇보다 소득 불평등에 따른 건강 불평등 해소 운동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에 인의협은 지금까지의 30년도 중요했지만, 앞으로의 30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인의협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인의협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의협 30주년 기념 사업회는 총 3가지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원들 모두가 인의협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의협 30주년 기념책자'를 집필 중입니다. 그동안 인의협이 걸어왔던 역사를 수집하고 10월경 출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의협은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의사단체라고 자부합니다. 해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진보적 의사단체 및 개인을 초빙해 진보적 국제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8일 '인의협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서울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인의협과 관련 맺어왔던 거의 모든 단체와 개인들을 초빙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데 대략 3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개월간 모금된 재정총액은 전체 예산의 3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회원 선생님들께 후원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후원 약정서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라고 쓰여있더라도 오해하지마시고 다만 1만원이라도 소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회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의협 3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 염석호 드림

신입 활동가 소개:D

Q.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상근활동가로 함께하게 된 강아름입니다.

Q. 인의협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특별한 계기랄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보건의료운동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했고, 제 전공과도 조금은 떨어져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운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때마침 인의협에서 상근활동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Q. 그럼 원래 관심분야는 뭔가요?

사회 전반에 관심이 많지만, 저는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반전평화운동이랄까. ㅎㅎ 그런 점에서도 인의협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구요. 매주 수요일에는 종각에서 하는 '수요평화촛불'에 참석하기도 하고, 보건의료운동은 인의협과 함께하고, 반전평화(통일)운동은 평화통일시민행동이라는곳과함께하고있어요~

Q. 인의협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작년 농민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에 참된 의료인으로서 실천하시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큰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의료진으로 오신 것을 봤어요. 세월호 유가족 유민아버님의 치료를 도맡아 하신 것도 알고 있었구요. 그래서 지원하면서도 '여기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Q. 이제 한 달 일했는데, 어떠신가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알게되서 흥미로워요. 또, 알고보니까 대학 재학중일 때 강경대열사 추모사업회라는곳에서 활동했는데 강경대열사와도 인연이 깊더라고요. 국제위원회 세미나에도 참석해봤는데, 어려울줄만 알았던 제 예상과는 달리 재미있고, 새로웠어요. 앞으로도 많이 배우면서 활동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상으로 제 자문자답을 읽어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며(ㅎㅎㅎ), 앞으로도 열심히 할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실제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